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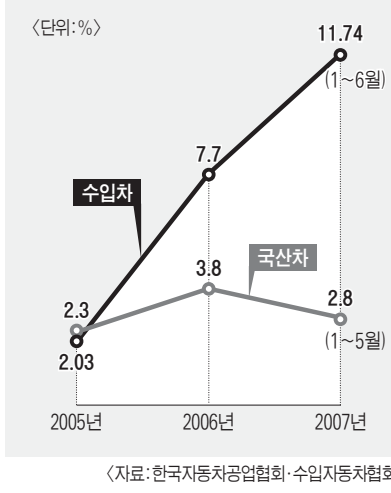
자동차

Car



폴크스바겐 '파사트 2.0 TDI'

■ 국산·수입 디젤승용차 판매 비중 추이



푸조 '307SW HDI'

국산차는 기고 디젤승용차 외제차는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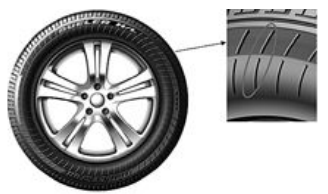
수입차 순간 가속력 탁월·오염물질 배출 줄여
푸조·폴크스바겐 디젤승용차 '절대강자' 지위
국산 디젤차 판매량은 최대 4분의 1로 떨어져

CDI'는 상반기에 237대가 판매돼 수입 디젤차 판매 순위 7위를 차지했다. BMW의 'X5 3.0 디젤'도 시판 3개월 만에 343대가 팔리면서 디젤승용차에 대한 인기를 반영했다.
◇국내 디젤승용차는 끝없는 '추락' = 수입차업체와는 달리 국산차업체의 디젤차량에 대한 인기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산 디젤승용차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올 들어 업체별로 최대 4분의 1 수준까지 판매량이 급감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디젤승용차 판매 대수가 5천

64대에 그치면서 지난해 상반기(7천363대)에 비해 31% 감소했다. 모델별로는 베르나가 지난해 상반기 2천303대에서 올해는 502대로 78.2% 급감했고, 쏘나타는 지난해 상반기 4천554대에서 올해 930대로 79.6% 줄었다.
기아차도 디젤승용차 판매 대수가 지난해 상반기 7천602대에서 올해 4천366대로 42.6% 감소했다. 올 상반기 프라이드 판매량은 3천531대에 머물러 지난해 상반기(5천905대)보다 40.2% 줄었고, 쉐라토도 같은 기간 1천534대에서 588대로 61.7% 감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쿨링핀' 타이어 개발 브리지스톤

브리지스톤은 런플랫 타이어(주행중에 타이어에 펑크가 나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일정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킨 '쿨링핀(Cooling Fin)' 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표면에 휠 중앙방향으로 돌기를 만들고, 이 돌기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를 이용해 타이어 사이드월을 냉각시키는 방식의 첨단 기술이다.

브리지스톤은 '쿨링핀'에 대한 특허신청을 냈으며, 런플랫 이외의 타이어에도 이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

올 들어 국산 디젤승용차의 판매가 급감한 반면 수입 디젤승용차의 비중은 크게 높아지는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승용차시장에서 수입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입 디젤승용차는 뛰어난 순간 가속력과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인 친환경 기술 등의 강점을 앞세워 올 상반기 판매 대수가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10%를 넘어설 만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산 디젤승용차는 기술 개선 및 모델 개발 등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크다'는 선입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최근 경유값 인상 등 악재까지 맞물리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입 디젤승용차 판매 '쌍쌍' =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판매된 전체 수입차 가운데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지난해(9.8%)보다 6.3%p 증가했다.

특히 수입 승용차 가운데 디젤차의 비중은 11.7%에 달하면서 디젤승용차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입 디젤승용차는 도입 첫 해인 지난 2005년 수입차 전체 판매량의 2.03%에 그쳤지만 지난해 7.7%로 3배 가량 늘어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다시 10%대를 넘어서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디젤승용차 열풍을 이끌고 있는 수입차 브랜드는 푸조와 폴크스바겐이다. 올 상반기 국내 전체 디젤승용차 판매 대수(1만664대) 가운데 수입차 점유율은 24.2%(2천576대)로, 현재 국내 수입차 점유율(5%)의 4배를 웃돌 만큼 디젤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푸조와 폴크스바겐은 올 상반기에 각각 961대와 1천29대를 판매하면서 전체 판매량의 77%(1천900대)를 차지하는 등 디젤승용차의 '강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는 판매 대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220%(661대), 97.5%(508대) 급증한 것이다.

◇푸조 '307SW HDI' 디젤승용차 '절대 강자' = 푸조의 '307SW HDI'와 폴크스바겐 '파사트 2.0 TDI'는 올 상반기 각각 524대, 475대가 팔리면서 수입 디젤차 판매 순위 1, 2위를 차지했다. 두 모델은 수입차 전체 차종별 판매 순위에서도 나란히 9,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푸조 '307SW HDI'는 지난 6월 가솔린 모델이 디젤보다 250만원 산 가격에 시판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고객이 디젤 모델을 찾는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고 출력은 138마력으로 동급 차종과 비슷하지만 최대 토크가 32.6kg·m나 돼 가속력은 경쟁 모델들을 능가한다. 14.4km/ℓ에 이르는 고연비도 고유가 시대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또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14.2㎡의 '파노라믹 문라이트 글라스 루프'를 통해 햇빛과 자연의 풍경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로 꼽힌다.

폴크스바겐의 '파사트 2.0 TDI'는 입자성 물질의 배출을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는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해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 차량으로 꼽히고 있다.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32.64kg·m의 강력한 힘과 13.7km/ℓ의 효율적인 연비도 강점이다.

이밖에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디젤 승용차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벤츠 'E220

현대 '베르나 드레스업 모델' 인터넷 경매 인기

열흘만에 입찰가 2배로



현대자동차가 자사 차량인 '베르나'의 외관을 변경·제작한 '베르나 드레스업 모델'을 인터넷 경매에 올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자사 홈페이지(www.hyundai-motor.com)를 통해 '드레스업 모델'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도전'을 테마로 한 차량이 지난 15일 현재 3천만원에 불과하던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모델의 경우 일반 시종모델보다 100만원 가량 저렴한 1천79만원에 시작됐으나 경매 열흘만에 입찰가가 두배 가량 높아졌다.

경매 대상은 베르나의 외관 일부를 튜닝한 10대의 차량으로, ▲열정 ▲사랑 ▲도전 ▲스타일 ▲속도 ▲카리스마 등 여섯 가지 테마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경매는 모델별로 1천79만~1천267만원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차량별 상세 내역과 함께 실시간 경매 현황 조회 등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오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경매 대상 모델은 지난 5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위치한 지점 10곳에 전시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경매는 소형차의 주 수요층인 20~30대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며 "독특한 캐릭터를 살린 드레스업 모델이 경매에 부처지면서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젊은 고객층으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개강 9월 3일, 기본서 배부, 국비무료, 광주고시학원, 공인중개사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전문수석
9월 3일, 3일, 주특관리사, 광주고시학원

3년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www.kr77.com, 973-5279, 372-5279, 574-5279